

‘무형유산 현재와 미래’ 한자리에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축전, 화락연희’ 23~26일 개최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오는 23~26일 4일간 ‘2025 무형유산축전, 화락연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전은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무형유산의 현재와 미래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23일 개막공연 ‘무형유산의 시작’에서는 김덕수 명인의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국가무형유산 남도들노래 고(故) 조공례 보유자의 모습을 인공 지능(AI)으로 복원해 제자들과 한 무대에서 교감하는 ‘명인오마주’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판소리꾼 겸 가수 최수호의 무대를 비롯해 전 출연진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축제의 문을 연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무형유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보여주는 공연이 진행된다. 개막 첫날 미리보기 공연(쇼케이스)으로 열렸던 ‘명인오마주’ 본 공연에 이어,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정수를 지켜온 이춘희 보유자와 전통의 틀을 넘나드는 창의적 소리꾼 이희문 이수자, 그가 이끄는 그룹 ‘오방산(申)파’가 함께해 특별한 기획공연을 선보인다.

25일에는 무형유산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연이 펼쳐진다. ‘명인전 - 명인명창시나위’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대금산조 이성강 보유자, 판소리(고법) 김청만 보유자, 판소리 김일구·김영자 보유자, 거문고산조 김무길 전승교육사,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이정산조 박대성 보유자,



‘2025 무형유산축전, 화락연희’ 포스터

그리고 해금 연주자 김성아와 타악 연주자 김태영이 함께하는 시나위를 통해 서로의 호흡이 어우러지는 교감의 무대를 선사한다. 이어지는 ‘탈의 락, 장군의 굿’에서는 전통 탈춤을 소재로 박인선과 장군남들이 무형유산의 깊은 울림을 신명나는 흥으로 승화해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축전 마지막 날인 26일 펼쳐지는 폐막공연

‘화락, 끝에서 다시 피어나다’에서는 하림과 불투카펠 앙상블, 소리꾼 이나래가 전통과 현대의 결을 잇는 상징적인 공연을 선보여 축제의 여운을 깊게 더한다.

이와 함께, 국가무형유산 기능분야 전승자(보유자·전승교육사) 102명의 작품 233점을 감상할 수 있는 ‘제53회 보유자작품전’이 열리며, 대국민 공모전 ‘한지ON: 무형유산을 담다’ 수상작을 상영하는 ‘무형유산 영상제’와, 영화와 무형유산의 새로운 만남을 제시하는 필름콘서트 ‘조선미술사’, ‘왕의 남자’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웃놀이·투호 대회, 공기놀이, 딱지치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민속놀이터’, 국가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경험하는 체험교육형 ‘이여지교’ 버스도 축전 기간 중 함께 운영된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들과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열린공방’과 함께 수공예품, 지역 특산 먹거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각국의 차와 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팔도홍마켓 & 전통미식한마당’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의 풍성함을 더하고 있다.

이번 축전은 세대와 국경의 경계를 허물고 문화의 미래를 함께 나누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차세대 전승의 주역이 참여하는 ‘어린이 무형유산 발표회’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들이 선보이는 ‘재외동포 초청 공연’도 마련됐다. 또 싱가포르 ‘극장 에스폴라네이드’의 음악 프로듀서 등 관계자들이 한국의 무형유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한다. /장은성 기자

출판진흥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서 수출상담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출판물의 해외 홍보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열리는 ‘2025 프랑크푸르트도서전(Frankfurter Buchmesse 2025)’에 참가해 수출상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매년 10월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 박람회로, 출판사·에

디터트·서점·도서관 관계자, 작가, 번역가,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업 등 전 세계 출판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92개국 4,300여 개 기관 및 출판사가 참가했으며, 방문객만 약 23만 명에 달해 글로벌 출판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출판진흥원은 도서전에서 출판 저작권 수출상담을 위한 수출상담관을 운영한다. 수출상담

관에는 문학동네, 창비, 미래엔, 웅진씽크빅, 위즈덤하우스, 문피아, 더핑크퐁컴퍼니 등 국내 주요 15개 출판사가 참가해 문학, 아동·그림책, 교육, 장르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선보인다. 도서전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출판사의 위탁도서 101종은 에릭앙에이전시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이 진행된다.

이번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참여는 한국 출판계가 해외 시장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남원풍류 전국농악경연대회 개최

고(故) 류명철 명인을 추모하고 남원농악의 전통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1회 남원풍류 전국농악경연대회’가 오는 19일, 남원시 요천면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경연 종목은 팽과리·장구·북·소고·전통연희·사물놀이로 구성되었으며, 전문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우승팀 ‘소옥’ 유럽 초청 공연 성료

전주세계소리축제 공모형 쇼케이스 ‘소리프론티어’ 최종 1위로 선정된 우리음악집단 ‘소옥’이 최근 유럽 초청 공연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사업 ‘소리 넥스트’ 일환으로 추진, 주형가리 한국문화원과 하나아트 네트워크와의 협업

으로 3개 도시에서 공식 초청 무대를 펼쳤다.

9일 ‘헝가리 미슈콜츠 세종학당 개원 기념 한국문화축제’ 공연, 11일 ‘불가리아 블라고예브그라드 시청 공식 초청 공연’, 13일 ‘폴로브디프 국립예술원 콘서트홀 초청 무대’까지 총 3회 진행했다. 모든 공연은 현지 주요 기관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로 마련됐으며,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광복 80주년 기념 ‘내소사 산사음악회’

다음국악관현악단 초청 특별기획공연 26일 개최

천년 고찰 부안 내소사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이 겪어온 격동의 시간을 음악으로 되새기며, 광복의 숭고한 의미를 다시 새기는 자리다. 동시에 미래와 세계로 힘차게 비상하는 부안의 비전을 담아내며, 지역과 전통, 그리고 K-컬처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내소사(주지 재안 스님)는 오는 26일 오후 1시, 경내 일원에서 다음국악관현악단 초청 특별기획공연 ‘천년 고찰, 내소사 - 그날이 오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가 주최하고 부안군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산사음악회는 일제강점기에 항거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음악으로 압축해 보여주며, 광복 8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와 세계로 도약하는 부안의 위상을 표현하고자 마



련됐다. 공연은 △광복 △염원 △희망 △독립 △평화의 5개 장으로 구성되며,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서양 합창, 태권도 시범, 일렉트릭 기타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흥 넘치고 도파민 터지는 대박 흥부제

‘남원 흥부제’ 17~19일 개최

남원시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펼쳐지는 ‘2025 남원 흥부제’가 전통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흥 넘치고 도파민 터지는 대박 흥부제” 슬로건으로 더욱 풍성하고 신명나는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흥부가 재비의 다리를 고쳐주며 얻은 ‘박새’가 터져 나오는 대박을, 현대적 의미의 ‘도파민’으로 표현하며 즐거움과 행복, 가족 간의 소통을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가족 관람객을 위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 대형 에어바운스, 짬뽕놀이, 흥부 콜라주 파자 체험, 어린이 직업 체험(키자니아), 페이스페인팅, 미꾸리 체험 등 다채로운 놀부존 프로그램이 행사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첫날 오전에는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열리며, 오후에는 버블쇼, 풍선아트, 솜사탕 등 어린이 공연이 펼쳐진다. 매시 정각마다 진행되는 경품 이벤트와 저녁 7시부터는 국내 유명 가수 조성모, 박남정, 김현정, R.ef, 영턱스클럽, 노이즈 등이 참여하는 화려한 개막식이 개최된다.

또한 시민의장 상과 흥부가족 상 시상식 진행되며,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는 21시 40분부터 약 15분간 진행되는 흥부제 역사상 첫 불꽃놀이로, 남원의 밤하늘을 환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둘째 날 오전에는 청소년 댄스와 밴드 공연



이 열리며, 오후에는 흥부와 놀부의 명랑운동회, 단막극 ‘흥부전’, 미니 거리극, 이색 추어 요리대회, 샌드아트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주말 저녁에는 제비네 수제맥주집과 ‘흥파민 미니콘서트’가 열리며 토요일은 김기태, 차수경, 전초아 등이 무대와 마지막 날에는 미니 서커스 공연, 태권 노래자랑(박군, 나태주), 그리고 아이돌 x909, 전영록의 공연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주말 이틀간 펼쳐지는 농악경연대회는 축제의 흥을 더욱 돋우며, 방문객들은 매시간 정각 진행되는 경품 이벤트로 양손 가득 선물을 안고 돌아갈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농촌의 희망을 이어갑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읍시지부 지부장 정 읍 농 협 조합장 유남영 황토현농협 조합장 유형기

칠 보 농 협 조합장 권순준 태 인 농 협 조합장 한상곤 신태인농협 조합장 황취중

샘 골 농 협 조합장 허수중 정읍원예농협 조합장 이대건 순 정 축 협 조합장 남상국